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4월 4일)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불기 2566년 연등회가 성황리에 봉행됐다. 코로나19 유행 이래 3년만에 대규모 연등회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후 첫 연등회여서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조계사 연희단원들이 달등을 들고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3년만에 재개한 연등회, 희망·치유 법석되다

## 4월 30일~5월 1일 대면 대규모 행사로 성료

송지희·임은호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3년만에 재개한 '불기 2566년 연등회'가 불자와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성료됐다. 올해 연등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불교계가 처음으로 봉행하는 대면대규모 행사이자, 2020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법석이기도 하다. 이에 3년만에 만나는 이번 연등회에는 수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운집해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가 4월 30일~5월 1일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주제로 봉행한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과 치유의 법석으로 마련됐다. 특히 연등회의 시작은 봉축연희단의 축하무대를 중심으로 한 어울림마당으로 펼쳐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선보이는 어울림마당은 연희단의 신명나는 율동을 통해 침체된 우리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연출됐다. 각 사찰과 불교단체의 어린이·청소년·청장년들은 음악에 맞춘 활기찬 율동으로 대중들을 축제의 장으로 이끌었고, 참석대중들은 연희단의 신명나는 무대에 환호로 화답했다.

이어 봉행된 연등법회는 온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었으며,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향하는 희망과 치유의 여정에 다름 아니었다. 연등행렬을 위해 종로 일대 도로가 전면통제된 것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서울 도심을 환희 밝힌 연등의 물결 속에서 저마다 행렬등을 손에 들고 장엄등을 뒤따르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환희로 빛났고 이를 반기는 시민들의 환호성은 다시 돌아온 일상을 실감케 했다.

밤하늘을 수놓으며 동대문에서 종각으로 도착한 연등행렬은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회향한마당은 시민과 불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 구분을 뛰어넘은 대화합의 법석이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흥겨운 찬불가에 맞춰 손과 손을 잡았고 눈과 눈을 마주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지만, 거리두기의 간격이 좁아진 만큼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 1만여 명 동참한 연등법회
### 연등행렬, 불자·시민 호응
### 규모감소에도 관람객 증가
### 전통문화마당 참가자 북적

마지막날인 5월 1일에는 한국 불교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전통문화마당'이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졌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단위 참가자, 외국인 등은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코로나가 끝나가고 연등회가 빛을 밝혔다. 이제 인류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때"라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국가와 세계를 위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르침"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A5면〉




2022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8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2·3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인터뷰·테마人 C1·2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



봉축특집 기획
문화, 불교를 입다
A13·14·15·18·19·20



다시 절로 B3·4·5·8·9
각 종단 봉축법어·봉축사 A7·8·9
연등회 화보 C10·11
봉축동화 B17